

‘컷오프 초읽기’ 민주 당권주자들 막바지 득표전

오늘 예비경선...본선행 3명 압축 투표 비율 70% 중앙위 표심 관건 이재명 외 후보들 판세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득표전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한 만큼 나머지 2명의 본선행 티켓 주인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당락은 투표 반영 비율이 70%에 달하는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표심에 달렸다. 컷오프 전날인 이날도 전국 중앙위원 383명의 휴대전화에는 ‘발’이 난 이유다.

유력 주자인 이 고문은 이날 당초 예정했던 전 통시장 방문을 취소하고, 중앙위원 접촉에 집중했다. ‘조선’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자 여의도에 머물며 ‘원격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고문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세론’을 이야기하지만, 컷오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끝까지 낮은 자세로 중앙위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것”이라며 “내일 밝힐 정견발표문을 정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국 반대 서명

교하게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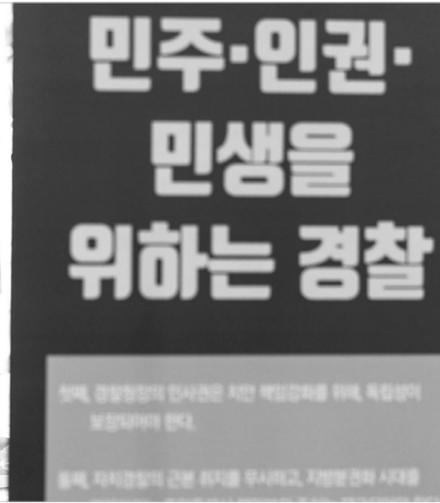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으로 불리는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 간 각자도생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은 총복을 돌려 ‘중원 당심’을 공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략했고, 나머지 3인은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하며 틈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중앙위원의 표심을 붙들며 땀 흘리고 있다.

‘이재명 적수’를 자처하는 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서울 일대를 돌며 수도권 표 다지기에 집중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인 김민석 의원은 중앙위원 막바지 구애전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유일한 ‘청년 주자’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마지막 날까지도 중앙위원 내 청년층을 타깃으로 득표전을 펴고 있다.

이 고문을 제외하고는 판세가 막판까지 안갯

속에 쌓이면서 예선전 승자가 누가 될지 시선이 쏠린다.

무엇보다 본선 무대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컷오프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1강(이재명)·다약’ 판세라는 게 중론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녀 ‘2중’으로 평가받던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실제 중앙위원 득표전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서 기타 후보들과 박빙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전 국민 인지도는 높지만, 컷오프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관측이 있다.

강성 당원이 주된 기반인 박주민 의원의 경우 이 고문과 지지층이 겹치는 것이 득표 한계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약체’로 분류되던 강훈식 의원의 경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선 조영천 의원 등 당내 중량급 인사들의 지지선언에 힘입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내부총질’ 파문 소용돌이 빠져든 여권

원내지도부, 확대 해석 경계 주력 권성동 90도 사과...리더십 시험대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로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여권이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 인식의 일단이 확인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셈이 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문자 메시지 공개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 경계에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권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잘 이끌고 와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내용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부에 관여했다든가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뒤숭숭한 당내 상황이 쉽사리 정리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윤

리위 경계 등에 ‘윤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거나, 용산의 하명을 수행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권 대행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9급 공무원 발언,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부총질’ 당사자로 추측되는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욕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 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적었다. ‘그 섬’은 여의도를, ‘이 섬’은 울릉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내부총질’ 문자 메시지 공개 파문을 예들러 저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비대면 방식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달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 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해 대의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시도 당 대의원 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8·28 전국 대의원 대회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 경찰국 저지 대어투쟁 ‘총력’

경찰장악대책위원장 한정애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 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반발,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저지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격양된 분위기다.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

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